

“미래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위해 매진 더 멀리·깊이·넓게 다양한 교육 만들 것”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진학정보망 확충...상담서비스 도입 운영
글로벌 프로그램·페스티벌 등 다양성 강조

학생 아이디어로 탄생한 ‘365-스터디룸’
광주만의 지적 재산권으로 상품 등록까지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하나하나 배우며 키워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27일 시교육청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에게 더 많은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원하는 삶의 방향을 탐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로 세우고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다시, 교육의 본질’로 슬로건으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추진했다”면서 지난 2년을 되짚었다.

대표적으로 학생에게 깊이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냈다. 이른바 ‘다양성을 품은 수업’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키우기 위해 수업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이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녹아있는 핵심 정책이다.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무대도 마련했다. 2년 동안 광주 곳곳에서 펼쳐졌던 광주학생탈테트페스티벌-光(광)탈테트 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야외버스킹 공연이다.

이 교육감은 “춤, 노래, 연주 등 맘 흘려 키워온 다채로운 재능도, 함께 어우러져 박수치고 응원해 주는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도, 모두 우리 광주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에 비해 뒤쳐진 진학정보망을 확충하고 학생, 학부모들의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는 정책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2023년 신설한 진로진학과를 축으로 일반계 고교 49개교에 대입전문상담교사를 배치했고, 365일 24시간 진로진학상담서비스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팔도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은 배움의 공간을 교실에서 사회로 확장하는 특화 프로그램이다.

이 교육감은 “광주 학생들은 우리 지역, 우리나라, 전 세계로

나아가 교실에서의 배움을 삶의 공간과 연결하고 체험하며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65-스터디룸’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학교 자율 학습 공간으로, 교육공간을 혁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적 재산권으로 상품 등록까지 마쳤다.

미래교육을 위한 탄탄한 기반도 구축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3년 동안 최대 3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광주에서 취업하고 정주하여 다시 광주를 키워나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재정집행률 목표 달성을 인센티브로 170억원을 확보했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선정,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한국어 교육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선정 등 1000여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최우수 SA등급을 받았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과 따뜻한 인성을 갖춘 자랑스러운 광주의 학생들로 성장해 세계로, 미래로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도록 더 멀리, 더 깊이, 더 넓게 광주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자기 주도적 맞춤 교육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전남교육 K-에듀의 선두주자로 이끌겠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책으로 여는 아침’·AI 맞춤 학습콘텐츠 등
학생 주도성 키우고 사고력 높이는 데 주력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전남 7곳 선정 성과
전국 첫 다문화인재전형 신설 등 상생 힘써



“전남에서 태어나 전남에서 꿈을 키우고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그 날까지 전남교육 대전환의 기반 조성을 위해 더욱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전남교육 대전환을 목표로 새로운 교육생태계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변방의 전남교육을 K-에듀의 선두주자로 끌어올렸다고 자평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년 전남교육 대전환 성과와 관련 미래교육의 핵심인 ‘자기 주도적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생 맞춤형 사고력 함양을 들었다.

806개교에서 실시 중인 ‘책으로 여는 아침’과 984명의 교원이 실천하는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나눔 활동, 6607명의 학생에게 제공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온라인 학습콘텐츠는 학생의 주도성을 키우고 사고력을 높였다는 것이다.

지역과 협력, 공생의 교육생태계 구축에도 매진했다고 밝혔다. 전남 22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전남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지난 3월부터 8만2511명의 초등학교생에게 1인당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제공한 전남학생교육수당, 80개교에서 진행한 학교 간 공동-연계교육, 5000여명이 이용한 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는 전남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노력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7곳이나 선정되는 결과를 도출했다.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에서도 이루어진 22개 국가와 17개 시도의 글로벌 교육공동선언을 통해 공생의 교육 생태계가 전남을 넘어 세계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 교육감은 지역에서 세계로 나가는 글로벌 교육을 강화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19곳의 지역외국어체험센터와 404명의 원어민 보조교사-강사를 통한 영어 및 중언어교육, 베트남-필리핀-캐나다·호주 등과 진행한 오프라인 국제교류, 235개팀이 참여한 ‘헬로우 e프렌즈’

(Hello e-Friends) 온라인 교류는 전남의 학생들이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역량을 갖추는 데 이바지했다. 이주배경학생이 찾아오는 글로벌교육 1번지로 도약하기 위해 2028년 기정 전남국

제직업고등학교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다문화인재가 초등교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다문화인재전형도 신설했다. 하지만 주민직선 4기 2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김 교육감의 교직원 등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욕에 티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조직개편·정기 인사·학교 행정실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정책 시행에 있어 일선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미흡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7월1일 조직개편안·정기인사와 관련, 교원 및 직원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지나친 교원 위주 정책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라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비판도 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주민 직선 4기 후반기에는 전남의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공생-미래교실-글로벌교육을 더 구체화해 학교 현장에서 펼쳐 보이겠다”라며 “전남교육은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과를 토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에듀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해 새로운 100년을 이끌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입법 절차...시의회 통과는 의문

교육·시민단체 폐지 반발

충남도와 서울시에 이어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요건을 충족해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주민 조례 청구로 접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수리 결정

을 내렸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서울시와 광주시, 전북도, 충남도, 제주도 등에서 잇따라 제정됐다. 지역별로 내용이 다르지만 차별 금지, 두발·복장 규제 금지 등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접수한 청구인들은 학생

인권조례로 인해 교사가 학생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점, 학생들의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는 점 등을 들어 폐지를 주장했다.

앞서 광주시의회가 주민 1만388명의 서명으로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유효성 검증을 한 결과, 유효 청구인은 8207명으로 청구권자 총수

(투표권이 있는 시민) 중 150분의1인 8007명의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광주시의회 운영위는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 심의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하고 수리 결정을 내렸다.

운영위의 수리 결정으로 광주시의회의장은 이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 교육문화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상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던 충남도와

서울시에서 잡음이 일고 있고, 지역 내 교육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지역 정서 등을 고려할 때 폐지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충남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지만 충남도교육청이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의회에서 지난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후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지난 25일 폐지안이 재가결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노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타하노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